시호 줄기 육계용 사료첨가제로 이용가능

충북대 조성구교수 연구발표

우리나라 재배 약초 중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당귀와 시호의 부산물인 마른 줄기와 잎이 가축사료의 첨가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발표되 관심을 끌고있다.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의 조성구 교수가 94년에 수행한 「당귀와 시호경엽의 가축사료 첨가제 이용연구」에 따르면 당귀와 시호의 수확후 버리는 부분인 줄기와 잎을 육계용 사료에 배합하여 급여했을때 기호성이 높고, 시호경엽을 0.5%수준으로 첨가한 사료 급여시 증체량이 대조구의 2천6백59g에 비해 월등히 높은 3천37g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체부에 비해 각각 80g, 1백g이상씩 증가되어 양질의 닭고기를 생산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 밖에도 지방 축적량, 혈액성장의 특징, 장기중량등도 함께 평가되었는데 특히 시호 경엽 처리구에서 그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성구박사에 따르면 『시호가 가지는 발한작용의 효과인지 특히 한여름 육계를 사양할때 그 효과가 커서 질병에 의한 폐사 등 갖가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진청 작물시험장의 성낙술 박사는 『생약의 고품질, 다수확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수요의 개발』이라며 『여러가지 생약이 갖는 기능성을 이용한 음료등의 개발과 이번 연구결과와 같은 사료첨가제의 개발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세동향

갈근 경남 거창, 김천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갈근은 자연산으로, 봄이면 1백만근 이상 나오던 것이 수입갈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부터는 50만근~10만근 정도가 고작이다. 수입과 국산이 형태상으로 거의 구별이 안갈 뿐 아니라 가격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 소비자들에게 국산갈근은 거의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갈근 시세는 kg당 1천~1천1백원, 수입갈근은 3백~5백원.

오미자 국내산이 근당 1만~1만2천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비해 수입 오미자는 4천원선. 자연산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수입산을 많이 찾기 때문에 국내산 오미자는 거래 부진한 상황.

황기 현재 거래되고 있는 6백g 당 도매시세는 1년근이 8천~9천원, 3년근은 1만5천~2만원, 6년근은 3만~4만원선이다.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황기시세는 다소 오를 전망.

구기자 수입구기자가 6백g 당 3천5백원인데 비해 국산 구기자 현도매시세는 6천~7천원선으로 지난달 8천~9천원에서 다소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산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다 지난해 풍작을 거둔 구기자 국내 생산량이 소비량을 웃돌고 있기 때문.

복령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물량의 90%는 수입복령이며 국내에서는 거의 생산되지 않고 있다. 국내산 복령시세는 근당 8천원 선이며 수입은 1천원선. 북한산 복령도 국산에 버금갈 만큼 품질이 뛰어나단다.

당귀 현재 거래되고 있는 당귀시세는 kg당 5천5백원, 신당귀는 7천~8천원 선.

지난달 시세와 별 변동이 없다. 지난해 여름 가뭄피해로 당귀농사가 흉년이었으나 올 한해 국내소비량으로 물량은 충분히 확보돼 있는 상태라 가격 또한 당분간 보합세 유지할 전망.

천궁 일천궁의 근당 도매시세는 지난달 7천8백원선에서 다소 오른 9천5백~1만원 선. 지난달 1만1천원~1만1천5백원 선이던 토천궁도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세는 1만2천~1만3천원 선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1만4천원 선까지 오를 가능성도.

백출 백출 역시 국내에서는 거의 생산되지 않은 품목으로 수입산이 많다. 시중 거래되고 있는 도매시세는 근당 7천~7천5백원 선으로 지난달과 같은 수준이며 수입백출은 3천5백원 선.

백지 현재 거래되고 있는 백지 근당 도매시세는 지난달 1천5백~1천8백원보다 다소 오른 2천~2천5백원 선이며 당분간 보합세 유지할 듯. 백지는 당년생으로 경북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

택사 지난해 가뭄으로 물량이 다소 부족해 약간의 상승기미를 보이던 택사도 지난달 시세와 변동없이 거래되고 있다. 6백g당 도매시세 3천2백원. 택사는 전라남도 여수와 경상북도 상주에서 많이 재배된다.

독활 현재 거래되고 있는 독활 근당 도매시세는 지난달과 비슷한 1천6백원을 고수하고 있다. 전라도와 강원도 경기도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독활은 수입이 늘어오진 않지만 국내생산량이 워낙 많은탓에 농가에서 약재시세로는 별 재미를 볼 수 없으며 대신 땅두릅이라 하여 봄에 나물로 많이 소비된다.

강활 강원도 고냉지에서 주로 많이 재배되는 강활은 생산량도 그리 많지 않은데다 수입산이 들어오지 않기때문에 큰 가격변동이 없이 적정선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도매시세로 근당 6천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반하 충남 서산에서 주로 생산되며 현재 거래되고 있는 국산 반하 도매시세는 6백g당 9천원 정도. 수입반하는 4천~4천8백원선.

산약 자연산은 1만8천~1만9천원 선이며 재배산은 6천5백~7천원 선. 수입 많이 들어와 가격이 떨어진 상태지만 당분간 보합세 유지할 전망. 산약은 경북 영주, 영동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다.

백하수오 자연산 백하수오는 근당 2만5천~3만원선에 거래되나 거의 나오지 않은 상태. 재배산은 굵기에 따라 차이나는데 엄지손가락 만한것은 1만4천~1만5천, 담배의 절반 굵기만한 것은 7천~8천원로 지난달과 같은 시세. 수입은 5천~6천원 선이다.

산수유 거래되고 있는 산수유 근당 도매시세는 전남 구례산이 5천~5천5백원이며 양평산은 4천~5천원선. 산수유는 과거에 대량 수출해 온 품목이나 근래들어 수출 저조한 상태.

작약 의성작약은 kg당 2천5백~3천원선.

전라도지방에서 나오는 작약은 2천~2천5백원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당분간 보합세 유지할 전망. 작약도 전국적으로 과잉재배되온 품목이다.

건강메모

생맥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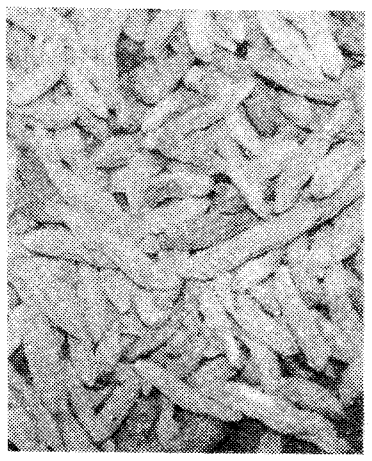
맥문동 맥문동은 뿌리를 사용하여, 한방에서는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으며 주성분은 당류, 전액질, 스테로이드 사포닌 등이 들어있다.

맥문동은 해열 소염 진해거담 작용이 있어서 폐결핵, 만성기관지염, 인후염 등의 건조한 기침에 반하, 인삼과 같이 배합하여 사용하며 강심 강장작용이 있어서 과다한 한출 혈압저하 빈맥 등의 쇼크 허탈 증상이 있을때 사용하는 약재이다.

오미자 오미자는 폐 신 신장에 작용하는데 특히 유정 몽정 같은 정액 누출을 막고 발한과다하여 신체가 나른하고 원기없을때 사용한다.

인 삼 인삼은 위가 약하여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치료하는 약으로서 허약자의 위부정체감 소화불량 구토 식욕부진 등에 사용한다.

생맥산은 위 세가지 생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가지 생약재의 상호 보완작용으로 과격한 운동후에 오는 피로감 특히 여름철 더위에 지쳐 식욕이 없고 활력이 떨어질때 효과적이다.



과격한 운동후 피로감 활력 떨어질때 효과적

〈복용법〉

생맥산(生脈散)
맥문동 12g
인 삼 6g
오미자 5g을 열탕하여 하루 3~4회 복용한다.

시호, 맥문동 차(柴胡、麥門冬 茶)
맥문동 50g
시 호 30g
오미자 30g
물 600ml에 달인후 꿀 약간을 회석, 차게하여 수시로 복용한다.

임 연 학
〈본협회수석부회장〉